

# Barun ICT **4** April **KOR** newsletter

바른ICT연구소는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 및 대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빠른 IT의 가치보다는 바른 IT 연구, 정책,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와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세계가 인정하는 융합 ICT 연구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Barun ICT Research

###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당할 위험에도 사람들은 왜 계속 이용할까?

- 판매자보다는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에 영향 끼쳐
- 중고 거래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간 지각하는 혜택에 차이



박유진\* 이보성\*\* 김범수\*\*\* 이애리\*\*\*\*

The e-Business Studies, 2017, 18(1) : 3-20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선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10조 원 규모를 웃도는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이트인 ‘중고나라’ 회원 수는 2016년 7월 기준 약 1,459만 명으로, **대한민국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회원**이다. 거래시장이 큰 만큼 거래사기 피해자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에 의하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건수가 2014년 4만 6000여 건에서 2015년 10월 기준 6만 30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신고 되지 않은 낮은 피해금액 단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디지털타임즈, 2016). 중고나라는 기업이 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없고, 거래 상품이 중고 상품이기에 품질 보장 등에 대한 위험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중고 상품을 신속하게 거래하려는 동기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협상을 통해 거래가 형성되는 특징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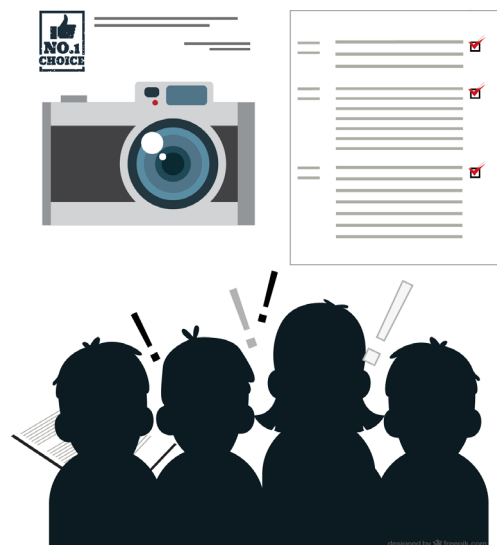
박유진 외(2017)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에서 거래가 왕성하게 진행되는 데에는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원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자가 중고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혜택과 비용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혜택 측면의 요소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상호작용성) 필요한 제품을 구매자가 원하는 방식으로(거래편리성)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경제적 혜택), 비용 측면의 요소를 판매자와 제품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도출해내었다.

연구 결과,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판매자보다는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위험을 느끼며, 거래편리성보다는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즉각적으로 추가정보를 획득하고 가격 협상이 가능한 상호작용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 물품 구매가 가능한 경제적 혜택에서 더 많은 가치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중고 거래 유경험자와 무경험자 간 지각하는 가치와 비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거래 유경험자는 경제적 혜택이, 반대로 무경험자의 경우 상호작용성과 거래편리성이 구매자가 지각하는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경험자의 경우 지각하는 위험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무경험자의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들은 실무자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과 경제적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이트 구축 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댓글, 쪽지 이외에 실시간 채팅 서비스나 모바일 메신저 연동 서비스 등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거래 당사자가 물품 정보 교환과 가격 협상에 보다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고객이 가치를 보다 높게 인식할 것이다.

또한, 구매자는 중고 거래의 특성상 판매자 불확실성보다 **제품 정보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판매자마다 제각각 제품 정보를 게시하여 정보의 품질을 하락시키지 않도록, **정해진 프로세스나 추천된 형식**에 맞추어 중고 물품 사진 등을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매자가 느낄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을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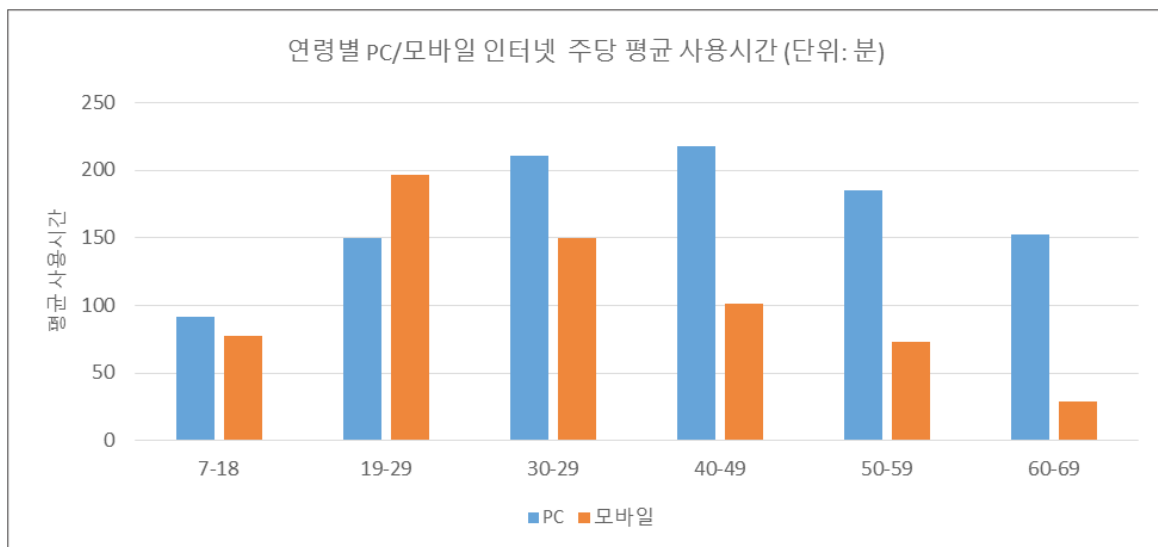
## 인구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PC/Mobile 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임지선, 박근용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 소득, 학력, 결혼여부 등 다양한 인구통계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모바일/PC 플랫폼의 이용행태를 다각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CT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보소외, 정보격차, 스마트폰 과몰입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모든 연구는 바른ICT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 너는 앉아서 검색하니? 나는 돌아다니며 검색한다!

- 인터넷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연령별 PC/Mobile 이용시간 비교
-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활동적인 20대는 PC보다 스마트폰 활용시간 높아
- 활동적이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60대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기술개발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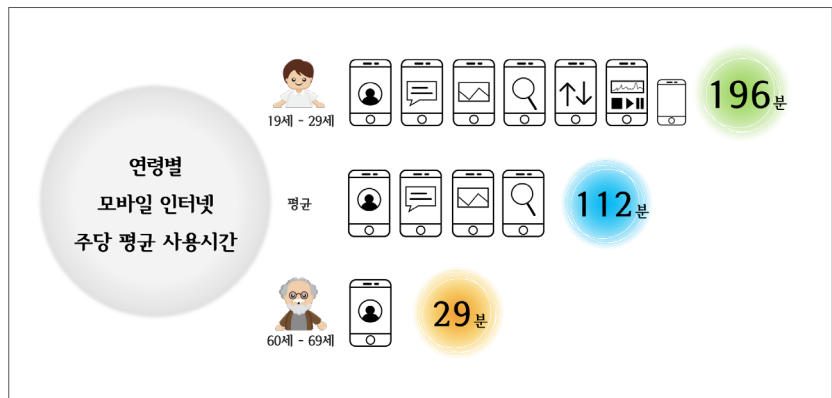


인터넷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연령별 PC/Mobile 활용행태를 비교한 결과, 연령에 따라 다양한 활용패턴이 도출되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의 6,0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및 PC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20대(만 19-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PC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180분/주당)이 모바일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112분/주당)보다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동안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났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측되어 왔으나,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실증 데이터로 플랫폼별 사용량을 분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이동성이 높은 19-29세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196분/주당)이 PC 인터넷의 평균이용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활용에는 익숙하지만, 이동성이 떨어지는 30-4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PC 인터넷의 사용이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연령별 활용 능력뿐 아니라 취업여부 등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가 PC/Mobile 이용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PC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시간 격차는 스마트폰 활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60-69세 노년층에서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모바일 인터넷 평균이용시간은 주당 약 29분이었으며, 이는 모바일 인터넷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20대 평균이용시간(196분/주당)의 약 1/7정도에 머물렀다.

장소의 구매를 받지 않고 보다 즉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은 지적 능력이 퇴화하고, 이동성이 높은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스마트폰 보급과 확산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며, 이들의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인지기능저하를 고려한 다양한 접근방법 및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



## Barun ICT Essay Contest

2016년 12월 19일 연세대학교 청솔관에서 'Barun ICT Essay Contest'가 개최되었다. 본 섹션에서는 Barun ICT Essay Contest에서 Best Essay로 선정된 3편의 에세이를 매달 1편씩 소개한다.

### #3. Social Networking Sites: Reflecting or Refracting Real-Life Privacy?

| Yeonwoo Koo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Yonsei University)

With the advancement of internet technology, we can now create societies online and populate them with real people. Likewise, these social networking sites (SNS) often seem to mirror the offline society. When we begin to imbue the SNS community with the same values that we adhere to in real-life, however, those same principles are distorted and exploited online. The three articles: Jon Ronson's "How One Stupid Tweet Blew Up Justine Sacco's Life," Leucio Antonio Cutillo's & Refik Molva's "Safebook: A Privacy-Preserving Online Social Network Leveraging on Real-Life Trust," and Andra Giurgiu's "Challenges of Regulating a Right to be Forgotte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Facebook" deal with **the impact technology has on the way privacy is viewed and defined on SNS.**

Although these articles acknowledge the privacy problems exposed to SNS users and the need for their protection, they differ in their underlying assumptions of how privacy is viewed on SNS. Whereas Ronson, and Cutillo & Molva believe that privacy values are universal and that the solution lies in influencing the users themselves, Giurgiu indicates the difference of privacy values between nations, and thus advocates for a technical reform of SNS. These articles helped me see that in the SNS context, the conflict stems from the broadening view of online privacy—showing that SNS essentially refracts, distorts our offline values of privacy.

Both Ronson and Cutillo & Molva view privacy values as universal, meaning that they believe there is a universal trust in real-life privacy. This universal privacy value not only applies to real-life, but should also be upheld when using SNS. Insofar, Ronson sees how damaging SNS can be when this universal value of privacy is broken online. Though Justine Sacco posted her infamous tweet intended for her 170 followers, the tweet "had been yanked violently out of the context of her small social circle." That Sacco's tweet was misinterpreted when placed in front of an unintended mass audience shows that her assumption of real-life trust working on SNS was distorted. Moreover, Ronson argues that the universal privacy value is further warped online due to the SNS shamers' lack of consideration to the devastating effects for their victims. While public shaming as punishment no longer happens in real-life because its "outsize cruelty of practice . . . in a crowd [takes] punishment too far," SNS users seem oblivious to damage of their online shaming. Since SNS distorts our initial view of offline privacy, Ronson concludes that we as a community need to return to the humaneness regarding another's privacy online.

In addition to Ronson, Cutillo & Molva propose that privacy values are universal in the sense that real-life trust relationships should be reflected in SNS as well. As SNS users are "real, unambiguously identifiable persons,"

---

Cutillo & Molva design **Safebook** with specific functions that will enforce “security based on real-life trust” (97). To make Safebook reflect this real-life trust, Cutillo & Molva design the system to empower the individual with the right to their own privacy—the access to control what they publish privately or publically. In this sense, Cutillo & Molva not only acknowledge a universal privacy value, but also endeavor to make a system where privacy is a universally held right. Though presented as a technological solution, Cutillo & Molva’s Safebook is fundamentally based upon influencing the people, particularly by empowering the individual SNS user. Likewise, Safebook reinforces Ronson’s view as well. Since a universal value of privacy also functions within the SNS community, problems occurring online need a solution that will change users’ attitudes.

Whereas Ronson and Cutillo & Molva call for a humanistic approach under the assumption that a universal privacy value exists, Giurgiu seems to counter this notion. Yes, there may be SNS communities that follow and uphold the value that real-life trust should also apply to the SNS context, but this differs from society to society. Regarding the European law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Giurgiu sees that **European values of privacy diverge from American principles**. While Europeans uphold government and protection of individual’s private and family life, Americans prioritize freedom of speech and the market over one’s privacy. With European jurisdiction denied by American courts due to these differing values on privacy, Giurgiu even goes to say that it is an “impossibility of an actual enforcement of European principles into American companies . . . it remains doubtful if the proposed right to be forgotten will actually have an impact on SNS

like Facebook and be able to protect individuals rights as it was intended to” (377). Thus, Giurgiu concludes that we need to change the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of SNS rather than change its inhabitants.

These three articles also compelled me to consider the impact SNS has on our viewing of privacy. In my opinion, the anxiety and betrayal of trust we feel in the SNS context comes from the blurring of previously distinct private and public spheres. With the advent of SNS technology, privacy as we knew it offline has now expanded from pertaining just to the individual, to now a small group of friends. Justine Sacco’s tweet is public information in the old sense because it was intended for her 170 Twitter followers. However, the scope of her small circle of friends is essentially private since the tweet was not meant for a larger, mass public audience. Cutillo & Molva’s Safebook also works to ensure a very private trust amongst inner shell members. Likewise, the definition of privacy is broadened to include a small group of friends—encompassing what was previously public to be private in the context of SNS.

In relations to expanding the scope of privacy, **SNS also merges the division between 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life**. Now, what used to be our public, professional life is intertwined with our private one. Though Justine Sacco was fired from her job owing to a public tweet, the tweet comes back to haunt her private life. In The New York Times interview, she says, “I’m single; so it’s not like I can date, because we Google everyone we might date . . . That’s been taken away from me too.” Rather than reflecting privacy values in real-life, SNS has refracted them to affect both Sacco’s career as well as her personal privacy.

---

Giurgiu also acknowledges the correlating influences of SNS affecting one's public life to private life, and vice versa. She states, "The digital reflection of our personality, the digital traces we are leaving every day have grown to become a threat to our future development" (362). Thus, we now begin to fear posting personal comments that may affect our future occupations. Despite our efforts to project offline privacy values into the SNS context, SNS inevitably seems to change these principles by broadening the definition of privacy.

Whereas Ronson and Cutillo & Molva discuss how privacy values are universal in real-life and online, Giurgiu addresses national differences amongst the value of privacy. After reading these articles, I find that the same offline privacy principles rarely work the same on SNS. In particular, the anxiety behind the SNS privacy violations is due to the broadening viewpoint of online privacy and the merging of the professional and private sphere. Rather than being a mirror that reflects real-life privacy values, **SNS is more like a distortion mirror that bends and refracts the real object.** Seeing these refractions is the first step to understanding how we need to apply or create different privacy values that function specifically on SNS. 🤖

#### [References]

- Cutillo, Leucio Antonio, and Molva, Refik. "Safebook: A Privacy-Preserving Online Social Network Leveraging on Real-Life Trust." IEEE Communications Magazine, Dec. 2009, pp. 94-101, [http://www.p2p.tu-darmstadt.de/fileadmin/user\\_upload/Group\\_P2P/share/p2p-ws10/safebook.pdf](http://www.p2p.tu-darmstadt.de/fileadmin/user_upload/Group_P2P/share/p2p-ws10/safebook.pdf). Accessed 12 Nov. 2016.
- Giurgiu, Andra. "Challenges of Regulating a Right to be Forgotte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Facebook." Masaryk University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 7, no. 2, 2013, pp. 361-378, <https://journals.muni.cz/mujlt/article/view/2641/2205>. Accessed 12 Nov. 2016.
- Ronson, Jon. "How One Stupid Tweet Blew up Justine Sacco's Life." The New York Times, 12 Feb. 2015, <http://www.nytimes.com/2015/02/15/magazine/how-one-stupid-tweet-ruined-justine-saccos-life.html>. Accessed 12 Nov. 2016.



## SNS상의 개인정보가 스토킹의 미끼가 된다

김선주 인턴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Come now, surely we can be friends

안녕. 우리 친구하면 좋을 것 같아.

I know so much about you

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어.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Look at everything I've done for you.

내가 널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You'd be nothing without me

넌 나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You blocked me on Facebook

널 페이스북에서 차단해?

And now you're going to die

넌 이제 죽었어.

[ Knife Party 'Internet Friends' ]

Knife Party의 Internet Friends라는 곡이 있다. 2011년 영어권에서 크게 인기를 끈 노래로, 소셜미디어 상의 관계가 집착, 스토킹,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내용 때문에 섬뜩할 수 있는 이 노래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비슷한 간접경험을 한 청년층의 격한 공감을 통해 인기를 끌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의 악용에 대한 걱정과 공포는 영어권과 청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문화와 연령층을 막론하고 많은 사회집단에서 소셜미디어 사용과 함께 경험하는 불쾌감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시대는 바야흐로 소셜미디어의 시대라 사용을 갑자기 그만둘수도 없는 일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는 편익도 상당하기에 소셜 미디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충분한 고려 없이 올린다는 데 있다.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분명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적극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의 악용에 대한 우려와는 대조되게, 그 우려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능숙한 30대 이하 사용자군은 우려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비공개 기능, 열람을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보호하기도 하지만, 40대에서는 비공개 기능을 사용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자라면서 프라이버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 개인정보의 악용이 걱정되더라도 보호 기능을 인지하거나 활용하는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언제 어디서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어디서나 누구나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무분별한 정보 노출과 유출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구체적 피해 사례의 한가지가 온라인 스토킹이다. 국내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한다고 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온라인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연초 일본정부는 온라인 스토킹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관련 정책이 시행된다. 스토킹 범죄의 비친고죄 전환을 통해 고소 취하시에도 기소될 수 있게 되었고, 징역 상한은 두배가 되었다. 또 경찰의 사전 조치 없이 가해자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추가적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연초 영국은 스토킹 범죄의 징역 상한을 10년으로 개정하였다. 영국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온라인 상의 접촉을 금지하고 피의자의 상담 치료를 의무화하는 등 스토킹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여느 나라와 같이 소셜미디어 이용자 수와 통신기술력

은 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속출해도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단과 방법이 아직 극히 적다. 일례로 스토킹에 대한 사법 조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스토킹은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벌금 10만원 이하인 경범죄로 분류된다. 국내 스토킹 연구 사례의 20%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중으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작년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 시도는 7번이나 폐기됐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대한민국의 개개인, 집단, 정부 모두가 집중해야 할 이때,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

[Source]

- Alyson Leigh Young and Anabel Quan-Haase, "Privacy Protection Strategies on Facebook,"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16 (4), 2013, 479-500
- 박남수, 이현주, 천혜선. (2014). 페이스북 정보공개 범위 수준과 프라이버시 보호전략,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78-114.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51127411&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151127411&code=940100)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4319>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0702109922732026](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0702109922732026)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09/20170109003137.html>
- <http://www.womennews.co.kr/news/97077>

## Barun ICT Event

###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and Intern Day

3월 23일, 바른ICT연구소의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와 인턴, 연구원들이 모여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and Intern Day를 가졌다.

개개인이 맡고 있는 업무와 계획에 대해 공유하며, 바른ICT연구소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들은 자국의 ICT 이슈를 뉴스레터에 수록하고 국제 행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외 인턴들은 역할에 따라 ICT 관련 연구, 디자인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



## ICT 기술이 교육에 도움을 줄까?



Shiori Sano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월 14일 도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인 시부야(Shibuya) 시는 9월부터 교육 목적으로 모든 초등 및 중학생에게 태블릿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요즘 일본에서는 태블릿, 전자 칠판, PC, 프로젝터와 같은 ICT 기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ICT 기기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을 보다 쉽고 즐겁게 이해할 수 있고, 일찍부터 디지털 장치를 다루는 것에 익숙해 질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ICT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몇 가지 부정적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첫째,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악화 될 것이다. ICT 기기의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사용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수업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둘째, 학생들은 종이에 직접 손으로 글을 쓰기 보다는 디지털 기기의 스크린에 타이핑을 한다. 어렸을 때부터 최첨단 장비를 다루는 것에 익숙해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이들이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장시간 동안 디스플레이 장비를 사용하는 학생은 VDT 증후군(VDT syndrome)을 피할 수 없다. VDT 증후군은 눈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중에 ICT 기기를 사용하다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수업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교사는 전혀 가르칠 수 없게 된다.

교육에 있어 ICT 기술의 부정적 측면은 모든 사용자가 인지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이 ICT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기존 교육 시스템과 ICT 기기를 사용하는 수업 간의 균형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

[Source]

- ICT教育とは? メリットやデメリット、問題点は? どんな事例がある? 活用方法は? | BRAVE ANSWER. (n.d.). Retrieved February 27, 2017, from <https://brave-answer.jp/16317/>
- ICT教育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 | 子供の通信教育比較 -幼児・小学生・中学生・高校生の通信教育-. (n.d.). Retrieved February 27, 2017, from <http://www.education-kids.com/>
- 渋谷区 区内の小中学校全生徒・教職員にタブレット 2017年9月より導入 | Knocknote. (n.d.). Retrieved February 27, 2017, from <https://knocknote.jp/topics/2017/02/15s/>
- 渋谷区予算案、全ての区立小中学校に1人1台タブレット端末を配備 | ICT教育ニュース. (n.d.). Retrieved February 27, 2017, from <http://ict-enews.net/2017/02/15-shibuya/>
- 私立中高がiPadを新規導入する時に押さえておきたいポイント | ICT教育ニュース. (n.d.). Retrieved February 27, 2017, from <http://ict-enews.net/zoomin/1702ipad/>



##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ICT 발전과 걸림돌

**Julieta Salvo**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사회지능유닛(Social Intelligence Unit) 컨설팅 그룹은 2월 초에 ICT 개발 지수를 발표하여 일련의 변수를 기반으로 모든 국가의 ICT 도달 범위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ICT 도달 범위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인터넷에 대한 높은 연결성과 휴대 전화에 대한 막대한 접근성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ICT 개발을 4.2 %로 증가 시켰는데 멕시코는 분석된 175개 국가 중 92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국가의 ICT 사용 및 접근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휴대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었으며, 이것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더 통합된 사회를 창출하려는 멕시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노력을 보여준다.

동일한 예로 콜롬비아에서 6명의 여성이 ICT부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성장과 'Vive Digital' 계획과 같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생태계 개발을 목표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처

는 일자리 창출과 ICT 사용 및 소유 증진을 통한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ICT의 지원으로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ICT를 제공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 시의원은 ICT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행정부와의 타협이 힘들고 투자가 낭비되는 것을 비판했다. 일례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치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Arts and Digital Jobs School이 건설 중이었으나 완성되기까지 10%만 남은 현재 중단되었다. 이 정치적인 무대책은 도시의 생산성, 개발, 그리고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 🇦🇷

[Source]

- Holloway, Christopher, "México Crece 9.4% en Indicador de Desarrollo en TIC", Netmedia.mx, February 15, 2017, <http://www.netmedia.mx/analisis/mexico-crece-9-4-en-indicador-de-desarrollo-en-tic/>
- Redacción, "6 mujeres que propenden por la evolución de las TIC en Colombia", Nueva Mujer, March 7, 2017, <http://m.nuevawmujer.com/mujeres/actualidad/colombia/6-mujeres-que-propenden-por-la-evolucionde-las-tic-en-colombia/2017-03-07/140606.html>
- Redacción, "Industrias TIC: 'Mar del Plata pierde trabajo, desarrollo y futuro'", El Retrato de Hoy, March 88, 2017, <http://elretratodehoy.com.ar/2017/03/08/industrias-tic-mar-del-plata-pierde-trabajo-desarrollo-y-futuro/>

# 디지털 프라이버시 표준의 필요성

**Laurel Maelynn Alley**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우리가 복용하는 약, 운전하는 자동차,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모두 일정한 기준(표준)이 존재한다. 신분증과 여권도 표준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은 없을까?

이것이 미국계 비영리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가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만들기로 결정한 이유이다. 최근 2017년 3월에 컨슈머 리포트는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스커넥트(Disconnect), 비영리 책임 단체인 RDR(Ranking Digital Rights), 비영리 소프트웨어 보안 테스트 회사인 사이버인디펜던트테스팅랩(Cyber Independent Testing Lab)과 공동으로 보안 테스트와 순위를 매기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은 디지털 제품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평가 기준은 개인정보, 보안 및 데이터 처리에 중점을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품의 데이터 보안, 빌드 품질, 데이터 보존 및 수집, 제3자 추적 및 소유

권과 같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통해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거버넌스와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은 그들의 웹사이트인 디지털 스탠다드(The Digital Standard) 뿐만 아니라 공개 협업 사이트인 깃허브(GitHub)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각 기준은 더 많은 작업과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내기 위해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발된 테스트 접근 방식을 잘 갖춘 것은 녹색, 개발 중이지만 아직 의문점이 많은 것은 노란색, 논의 중인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제조업체는 이미 자사 제품에 이러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다.

컨슈머 리포트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Source]

- <http://www.consumerreports.org/privacy/setting-standards-for-digital-privacy/>
- <https://github.com/TheDigitalStandard/TheDigitalStandard>
- <http://www.consumerreports.org/privacy/consumer-reports-to-begin-evaluating-products-services-for-privacy-and-data-security/>
- <https://www.thedigitalstandard.org/the-standard>

\* 본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mailto: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er 김범수 | Editor 손수민 | Designer 김현숙, 박영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Phone: +82-2-2123-6694 | [www.barunict.kr](http://www.barunict.kr)

